

# 日本石油業界, 自由化로의 움직임

— 施設改替에 最低利融資도 —

日本の通産省은 석유산업의 구조개편의 핵심부문인 元壳의 集約과 精油会社의 구조개편을 촉진하기 위해 석유업법에 의한 규제나 행정지도를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石油審議會(통산성의 자문기관)가 내년 1월 중순에 매듭지를 목표로 검토중인 元壳集約基準案을 보면, ① 생산, 판매면에서 보호와 통제가 많은 석유공급계획을 타 산업과 같이 단순한 가이드·라인으로 바꾸고, ② 정유회사가 매월 제출하는 생산계획은 참고자료로 그치고, 생산에 관한 지도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폐지하며, ③ 실적에 따른 정유회사의 생산세어나 휘발유, 등·경유 등의 생산수을 변경을 각사의 자주적 판단에 맡기고, ④ 생산설비의 양도, 정유회사(元壳를 포함)의 제휴, 합병에 관하여도 기업의 자주성을 존중한다는 등, 지도나 인·허가사항을 극력 줄이고 석유업법의 운용을 완화, 개선함과 동시에 석유제품의 무역자유화를 도모하여 석유산업에 단계적으로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외부로부터 再編, 集約을 유도해 갈 방침이다. 이것은 업계의 일각에서 강하게 요구한 석유업법의 철폐 혹은 개정은 일단 보류하고 석유업법의 대폭적인 완화와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과거의 정부의 보호방식에서 自由競争체제로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 石油業法の 운용현황

石油業法은 1962년에 제정되어 메이저로 부

터 국내석유회사를 보호, 통제하는 색채가 강하다. 그것은 정유회사, 元壳의 사업활동을 조정, 규제하는 것인 바, 구체적으로는 매년도 책정하는 석유공급계획에서 당해년도의 수급동향이나 향후 5년간의 수요전망 외에도 원유수입량, 제품생산량, 재고량, 필요정제능력을 결정, 이를 토대로 정유각사에 연간 및 매월의 생산계획이나 원유수입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전체 계획에 맞추도록 지도하는 외에 생산설비의 변경을 인·허가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나 제품의 수입, 제품의 판매, 설비의 신증설이나 양도까지 전부 석유심의회나 통산성의 지도, 승인을 필요로 한다. 또 정유회사 개별 제품의 생산량에 관하여도 실적이나 수요동향에 기초하여 엄밀하게 체크, 생산세어의 유지를 도모하고 있다. 설비개선과 함께 개별제품의 생산수을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구조변화에 따른 나프타, B-C油 중심에서 휘발유, 등·경유의 경질유로의 생산전환을 도모코자 하는 極東石油工業, 九州石油, 鹿島石油 등의 콤비나트·정유공장, 오직 윤회유만을 생산하여 경영난에 빠져있는 富士興産의 수율변경, 설비개선이 업계내의 調整難으로 있는데 아직도 동결된 상태이다.

반면, 수요량이 이미 1971, 72년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정유회사, 元壳의 숫자가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적에 의해 생산세어를 보호하고 있는 상태이어서, 경쟁원리에 의한 축소균형으로의 진전이 제약받고 있는 실정이다.

## 石油業界의 재편방향

石油審議會는 12월 중순에도 元壳집약기준안을 정리하는데, 이것을 실현함에는 歐美의 석유산업과 같이 업계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철저한 減量化, 集中化, 效率化의 추진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석유업법을 완화운용하고자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석유업계의 재편, 집약화를 촉진하는 기술로서는 석유업법에 정해져 있는 석유정제설비의 신증설허가 권한을 활용할 방침임을 通産省은 명백히 하였다. 集約化의 방향을 심의중인 석유심의회에 검토를 구하고 있다. 석유업계는 제품수요의 변화로 휘발유, 등·경유의 中, 輕質油의 생산비율을 높이는 2차 설비를 신증설할 필요가 급박하므로, 통산성은 2차설비의 도입에 最低利融資의 길을 여는 “지원” 방침을 쓸 생각이다. 한편, 용자에 대하여는 시장점유율등 일정한 기준선을 만들어 기준에 차지 않는 元壳会社에게는 2차설비의 신증설을 인정치 않는 “강제” 방침을 써서 제휴, 합병을 촉구할 작정이다.

### 2次設備 지원대책

省에너지나 石炭등 代替에너지 이용과 산업구조의 변화가 진행되어 급속히 重質油 이탈이 야기되어 석유업계는 수요와 생산설비간의 불균형에 직면하였다.

통산성의 추산에 의하면, 1990년 시점에서 필요한 2차설비는 하루 117만배럴(脫黃장치의 개조를 포함)이 된다. 이에 대하여 현재의 2차

설비는 하루 57만 3천 배럴로서 그 절반에 지나지 않고, 석유업계 전체에서 필요한 설비투자액은 7천~8천억円에 달한다고 예상된다. 이 때문에 통산성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편·집약화를 목표로 元壳會社가 2차설비를 도입할 경우, 일본개발은행의 용자대상으로 함과 동시에 利了補填제도를 창설, 보통의 개발은행(出特利)을 2.15% 하회하는 최우대 金利(5.15%)를 적용한다는 요구를 大藏省에 제출해 놓고 있다.

통산성은 이런 방식의 지원정책을 쓰는 한편, 새어등이 일정기준 이하의 기업에 대하여는 2차설비의 신증설을 인가하지 않는, 엄격한 강제정책도 행할 방침이다. 石油部會 小委員會의 심의에서 바람직한 금후의 업계세력판도로서는 ① 판매세어 25% 정도의 리딩·컴퍼니(주력기업)의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② 집약화의 목표는 최저 세어 10% 이상으로 한다는 등의 사항이 논의되고 있다. 통산성은 이러한 식의 논의를 근거로 집약화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미달하는 “中小企業”의 2차설비 도입을 인가하지 않는 방침에 의해, 제휴·합병을 촉구토록 할 목적이다.

다만, 기업의 생명을 억제하게 될 강제의 행사는 석유업법을 남용하는 것이 된다는 의문도 있어 석유부회 소위원회의 검토에 맡기게 되었다.

석유元壳의 판매세어의 톱은 일본석유(18%)로서, 10%를 초과하는 것은 出光興産, 共同石油에다가 내년 3월을 목표로 정제부문 합병에 합의한 大協, 丸善石油을 추가하여도 4개사에 불과하다. \*

# 분수지킨 연말연시

## 희망에찬 새해살림